



세계 불교국제회의의 현황

# 한국,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뜬다

국제회의의 유치 세계 18위, 아시아 3위(국제협회연합, 2001년 발표).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은 국제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늘어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같은 국제교류의 시대에 한국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한국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매년 세계 각 분야의 국제 불교단체들은 크고 작은 회의를 조직해 전 세계 불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꾀하고 있다.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 국제포교의 장을 넓히기 위한 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003년 7월 열린 참여불교 세계대회(INEB)를 비롯해 2004년 1월 예정된 세계불교청년포럼, 같은 해 6월에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 등은 대표적인 국제 불교 행사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사례다. 이들을 포함해 한국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불교계 국제회의를 살펴본다.

**△ 참여불교 세계대회**  
총 33개국 200여 단체 및 개인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참여불교 국제네트워크. 1989년 솔라 시바락사(태국), 테루오 마루야마 스님(일본) 등이 중심이 돼 창립된 이래, 4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 한국에서 열린 제 11차 참여불교세계대회(INEB, International Network for Engaged Buddhism)에

표자와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매년 2~3회의 이사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이들이 주최하는 세계불교청년포럼은 2001년 대만(1회), 2002년 뉴질랜드(2회)에 이어,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 3회 포럼을 개최한다.

**△ 세계여성불자대회**  
세계여성불자연합회 주관으로 마련

## 월드컵 이후 국제회의 개최 증가 추세 교류 협력 위한 교계의 관심, 참여 요구

서는 18개국의 불교 NGO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해 빈곤, 갈등, 평화, 인권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 세계불교청년회**  
1972년 창립된 세계불교청년회(WFBY,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20개국 36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돼 있다. 세계불교청년회는 2년에 한번씩 각국 대

회는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는 1987년 부처님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열린 이후 아시아 지역을 돌아가며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다. 내년 6월 한국에서 '여성 불자의 교육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제 8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27개국 500여명의 여성 수행자와 불교학자

들이 모이게 된다.

**△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ference in Sri Lanka)는 스리랑카 정부 불교부가 주최하는 전불교권 국가 대상의 국제회의. 2003년 1월 스리랑카 불교중흥의 계기가 되었던 '사모파리 니카야' 창립 250주년을 기념해 스리랑카 풀럼보에서 처음 열렸다. 자국의 불교상황을 진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는 앞으로 2년에 한번 꼴로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 국제선우연합**  
불자들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이웃종교와의 협조를 긴밀히 한다는 취지 아래 결성된 국제선우연합(International Buddhist Friends Association)은 매년 법회와 명상수행 중심의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열린 이 대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 국제불교학연구연합**  
1976년 설립된 국제 불교학연구 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은 불교학 연구 촉진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세계의 불교 학자들이 모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널(IABS)을 발행한다. 제 15회 정기 국제회의가 오는 2005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성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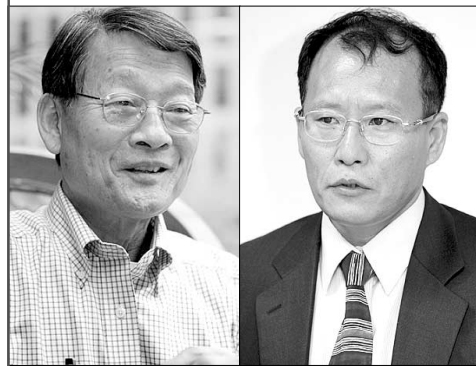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 ⑥ 스토니부룩 대학 한국학과

미국의 뉴욕주립대에 '수니(SUNY)'란 애칭으로 통하는 뉴욕주립대. 5개의 뉴욕주립대 중 하나인 스토니부룩 대학은 맨하탄을 마주보며 동서로 길게 뻗은 롱아일랜드의 중간인 스토니부룩 시에 위치해 있다.

스토니부룩 대학의 특징은 한국 불교를 비롯해 한국 문화, 역사, 사회를 연구하는 학부과정의 한국학과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한국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역사, 사회학 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스토니부룩 한국학과는 현지 교민들이 한국학과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하버드, 버클리, 풀럼비아, 시카고 대학 등 총 20여 대학 한국학과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거대 지원금으로 시작된 것과 달리, 스토니부룩 한국학과는 뉴욕 인근 한인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펼쳐 설립됐다. 그래서 한인들은 스토니부룩 한국학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박성배 교수 ◇조성택 교수

민 2, 3세가 이곳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운다.

또한 중국, 인도, 일본 관련 연구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10만 권 이상의 한국학 장서를 보유한 전용도서관을 가진 것도 스토니부룩 한국학과와 자랑이다.

## 교민들 자발적 설립운동 펼쳐 10만장서 보유 전용도서관 자랑 문학, 역사 안목 기르는데 주력

대학원 과정의 불교학 연구는 비교문학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매해 5~7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하는 비교문학 과정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 문학, 역사 연구

를 비롯, 최근에는 영화와 여성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스토니부룩 대학 한국학과와 창립자는 박성배(70) 교수. UCLA의 로버트 버스웰 교수, 버클리 대학의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와 함께 미국 내 한국 불교 연구를 대표하는 박 교수는 62년부터 69년까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성철스님 문하로 출가한 바 있다. 69년 도미해 78년 버클리 대학에서 원효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77년 스토니부룩 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박 교수는 79년 한국학과 창설, 82년 첫 한국어 강좌 개설, 87년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과 독립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 왔다.

그밖의 불교학 연구자로는 불교철학, 인도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비교연구, 한국불교 연구자인 조성택 교수가 있으며 한국학 강의를 맡는 교수 강사의 수는 총 10여 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비교문화학과에서는 유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사상과 문학, 이슬람 종교와 문학, 서양 문화와 종교, 철학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구에 임하고 있다.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스토니부룩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한국학과장 박성배 교수는 "미국 내 불교학 연구는 학교에 따라 문헌학적 연구, 산스크리트 연구를 통한 연구, 종교학적 연구 등 성격이 다양하다"며 "스토니부룩의 경우 불교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불교를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 문화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 중, 지장보살상 건립불사 착공

중국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99미터 크기의 지장 보살 노천 동상이 안후이성(安徽省)과 초저우시(池州市) 및 구화산(九華山)풍경 관리국의 대대적인 지지와 협력아래 11월13일 정식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불교선사> 11월 7일자가 보도했다.

이 지장보살 노천 동상은 원래 안후이성 구화산불교협회의 회장인 인덕(仁德) 스님, 이미 원적이 21세기의 시작을 맞아 친히 제정한 구화산 불교사업이다. 금년 2월 15일, 구화산불교협회는 초저우시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당국이 지장보살 노천 동상

을 건립해 줄것을 부탁했다. 초저우시 시위원회와 시당국은 지우화산풍경 관리국의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건설, 감독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대만=이상미 통신문

## 중, 쿠무투라 천불동 보호 사업

중국 신강성에서 두번째로 큰 석굴군인 쿠무투라 천불동이 11월4일부터 침수와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번 보호 사업에는 베이징 대학과 독일의 유적지 보호 회사 등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의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상미 통신문

## 캄보디아, 세계 최고령 불자 사망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색 노인이 태어난 해는 발명왕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발명하고 와트 어프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캄보디아인 이 색(Yi Sek·사진) 노인이 지난달 14일 동 캄보디아에서 12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형제가 OK목장의 결투를 벌이던 1881년, 불교 신자인 이 노인의 최장수 기록은 고향인 툽 응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이 색 노인의 둘째 부인도 현재 111세이며 툽 응 마을에 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최근 프놈펜 포스트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일을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이 백년 해로하게 된 비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부처님의 계율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인 셈이다. 이 노인은 두 명의 부인 사이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고 70명의 손자와 420명에 달하는 증손자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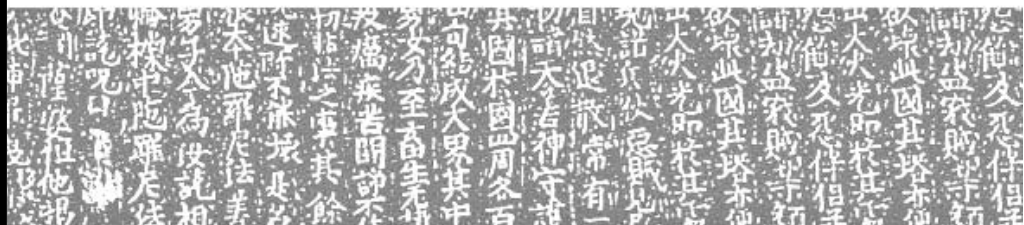
뉴욕=강유신 특파원



#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법구경 강의 80송**  
강의: 법산스님 (동국대학교 신학과 교수, 정각원장)

본 법구경(法句經) 설법일은 2002년 3월 18일부터 2003년 3월 10일까지 14개월에 동안 불교방송의 경전교부부 사간인 강희원선생님 내용중 80일분을 선별하여 엮은 내용이다.

법구경은 불교의 경전으로, 란타라 왕 경왕왕(Dandilaraja)의 왕이 스승사공에 속한다. 여러 왕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왕의 라타라 불교를 신봉하는 왕이 라타라에 있는 법구경의 원본을 보았을 때, dharmma가 다르다, padu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왕은 신라왕으로, 불후의 왕으로 불리게 된 법구경이라고 여겨진다.

BBS 불교방송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